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나타난 아버지 상(像)과 그 교육적 역량

김영철(金映鐵)*

논문 요약

이 연구는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나타난 아버지 상을 분석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연구에서 아버지 상은 원아버지가 물려 준 '근원적 요인'(정서적 기저와 제도적 조건)과 아버지 자신이 수행한 '객체적 사건'에 의해 형성된 아버지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중심으로 설정된다. 이 개인적 문제는 아버지 자신의 '주체적 사건'을 계기로 극복되기도 하고 극복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 극복여부에 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교육적 역량이 달라진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 아버지 상은 아버지 자신의 개인적 문제의 극복여부라는 내용적 측면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교육적 역량이라는 표현적 측면을 갖는다. 소설 『토지』에서 연구의 전제에 따라 선정된 아버지들은 조병수, 이용, 김한복, 이흥, 임명빈, 김한경, 김길상, 조찬하 등 모두 8명이다. 이 아버지들은 각기 고유한 아버지 상을 보여주지만, 아버지 자신의 개인적 문제의 극복여부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교육적 역량에 따라 재분류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행하는 자녀교육의 성패는 아버지 자신의 자기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 자신의 개인적 문제의 극복은 종교적 차원과 이념적 차원이라는 더 큰 자아에 의해 가능하다.

주요어 : 소설 『토지』, 아버지 상, 내용적 측면, 표현적 측면, 자기교육, 교육적 역량

I. 서론

아버지 상은 '관계체험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아버지의 성장적 특성'을 갖는다(공진수, 2006: 110-1). 아버지 상이 단계적 상승 또는 질적 변화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초월'이나 '성장'과 관련 맺는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자녀가 가진 아버지 상, 아버지가 가진 자아상, 그리고 시대가 요청하는 역사적 아버지 상 모두에 타당하다. 물론 판단자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 그 각각의 상이 성장, 퇴보, 정체 등으로 달리 판단될 것이다. 한편 아버지 상의 초월과 성장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동적 특질과 상상적 특질에서 나온다. 오성적 능력의 '개념'이 가진 건축학적 고체성과는 달리, '상'은 유체적 유동성을 띤다. 가령 영화적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동적인 성격이 그러하다(Deleuze, 1983/1986: 2). 유동적 이미지의 몽타주로서의 영화가 가진 교육적 역량은, 원칙적으로, 아버지 상에도 해당된다. 또한 상상력의 소산으로서의 상은 감정이나 감각과 개념을 매개하는 구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가능세계를 열어 보인다. 다시 말하여 상은 개념에 규정적(determinant)으로 매이지 않고 반성적(reflective)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작품과 유사하다. 이때 예술작품의 창조성은 중의적이다. 즉, 예술작품은 어떤 새로운 상을 창안하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상상적 상인 것이다. 이 연구는 예술작품 중에서도 문학작품에 나타난 '아버지 상'을 탐구하고자 하는데, 이는 문학작품에는 유동적이고 상상적인 아버지 상이 잘 드러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정환과 오경희(2008)는 최근(2003-2008년) 아버지 연구의 동향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 연구는 '역할 연구'와 '상 연구' 두 가지이다. 우선, 아버지 역할 연구는, 1) 그 역할의 내용에 관한 연구, 2) 그 역할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그리고 3) 그 역할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분류된다. 1)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역할 내용은 무수히 많이 나열될 수 있다. 이 다양한 역할내용을 상위범주로 묶게 되면 '아버지 상'에 다다른다. 이처럼 아버지 상 연구는 아버지의 역할내용 연구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2)와 관련하여, 역할의 결정요인은 사회적 차원의 것과 심리적 차원의 것으로 구분된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결정요인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아버지 역할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예를, 심리적 차원의 결정요인은 '아버지의 자아효능감이 아버지 역할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여기에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의 특수성을 규명한 연구가 추가될 수 있다. 가령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효능감이 아버지 역할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결정요인을 유아기라는 자녀의 특수한 발달단계에 따라 규명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3)과 관련하여, 아버지 역할이 독립변인이 되고 자녀의 발달이 종속변인이 되는 연구도 있는데, 가령 '아버지의 양육에의 참여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같은 주제가 설정될 수 있다.

한편, 아버지 상 연구는, 1) 자녀가 보는 아버지 상 연구(권재희, 2006; 김영철, 2014; 조선휘, 최명선, 2004), 2) 아버지 스스로가 보는 아버지 상 연구(김영철, 양진희, 2014; 전연우, 조희숙, 2013; 조형숙, 김지혜, 김태인, 2008), 그리고 3) 아버지로서의 행위 그 자체의 의미에 관한 연구(박세다, 2013; 서명원, 2007; 이홍우, 1993; 채희운, 2012)로 분류된다. 1)의 연구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탐구한다. M. Proust가 마들렌 과자와 홍차로부터 떠올린 고향 콩브레의 ‘비자발적 기억’에 비추어 보면, 자녀들이 의식적으로 ‘회상하는’ 아버지 상이 오히려 작위적이고 피상적이며 왜곡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연구들이 자녀에게 설문한 자료에 기초하여 아버지 상을 확정하고 있다. 2)의 연구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상 연구인데, 이 아버지 상을 ‘아버지의 자아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에도 앞의 ‘아버지의 이미지’ 연구와 동일한 문제가 있다. 3)의 연구에서 아버지 상은 ‘제도적 의미로서의 아버지 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Hanson(1975)에 따르면, 인간현상에 관해서는 개인적 질문과 제도적 질문이라는 서로 환원되지 않는 두 가지 차원의 질문이 제기 될 수 있다. 개인적 질문은 사람들이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동기나 의도를 묻는 것이며, 제도적 질문은 상호 관련을 갖는 관념, 사회조직의 형식, 행동의 규칙 등을 묻는 것이다(Hanson, 1975: 4). 제도적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의 제도적(‘합의적’) 의미는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행위 그 자체의 의미, 즉 문화를 말한다. 이상의 세 종류의 아버지 상 연구물들의 대부분은 몇 가지 아버지 상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발견된 아버지 상들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까지 나아간 연구들도 있다(김영철, 2014; 김영철, 양진희, 2014).

아버지 역할 연구와 상 연구는 각각 실증주의적 연구전통과 해석적 연구전통에 터하고 있는 듯하다.¹⁾ 서로 다른 연구전통에 기반하고 있는 두 가지 아버지 연구이지만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수렴한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그 수렴이란 ‘아버지 상’이 ‘아버지의 역할내용’의 상위범주라는 것이다. 수행, 기대, 지각의 모든 ‘역할’은 잘게 나누어진 행위, 가치, 비유적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범주적으로 묶으면 ‘상’이 된다. 가령, 요리하기라는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가정적 아버지라는 상,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라는 아버지의 역할기대는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상, ‘쉽터 같은’이라는 아버지의 역할지각은 지지하는 아버지 상의 하위범주가 될 수 있다.

아버지의 역할내용을 상위범주인 아버지 상으로 묶으면서, 그 상은 원래의 상상적 유동성을 상실하고 점차 고정되고 체계적인 개념을 닮아간다. 유동성과 상상성을 가진 영화나 문학 등을 자료로 취하더라도, 아버지 상 연구가 겪는 추상화, 고착화, 형해화 현상은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 내재한 ‘교육적’ 특성이 높은 가독성을 가지면서 모종의 고양

1) Geertz(1957)는 ‘사회’와 ‘문화’를 각각 ‘원인-기능적(causal-functional) 조직’과 ‘논리-의미적(logico-meaningful) 조직’으로 명명하는데(Peacock, 1986: 34-5에서 재인용), 전자는 실증주의적 연구전통의 대상을, 후자는 해석적 연구전통의 대상을 지칭한다. 그는 후자를 전자와 구별해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경험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원텍스트가 가진 상상적 유동성은 어느 정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문학작품, 그 중에서도 서사의 일종인 ‘자아와 세계가 상호 우위에 입각해서 대결하여 자아와 세계에 두루 통용될 수 있는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소설(조동일, 1993: 137)로부터 아버지 상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데, 이때 방법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소설이 여실히 보여주는 상상적 유동성을 보존하면서 아버지 상을 규명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방안으로서, 이 연구는 기존의 아버지 상 연구가 거점으로 삼고 있는, 1) ‘아버지의 이미지’의 담지자로서의 자녀, 2) ‘아버지의 자아상’의 담지자로서의 아버지 자신, 그리고 3) ‘아버지의 제도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행위를 모두 고려하면서, 아버지 상을 아버지 고유의 개인적 문제라는 ‘내용적 측면’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적 측면’의 조합으로 보는 복합적 접근방법을 구안한다.

이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버지 상은 아버지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 문제의 극복 여부라는 측면(내용)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가지는 교육적 역량의 측면(표현)으로 구성된다. 가령, ‘아들에게 반복되는 신분적 열등감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음의 목전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면서 아들과 화해를 하려는 아버지’²⁾가 있다고 하면, 신분적 열등감은 그 아버지의 개인적 문제이며, 아들과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측면이다. 직접 아들과 대면하지는 못하였지만, 사후에 전달된 유서를 통하여 아들에게 보내지는 아버지의 화해의 메시지는 그 아버지가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극복하였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개인적 문제의 극복이라는 결과로부터 의당 이 극복 이전의 어떠한 ‘주체적 사건’(문제를 푸는 사건)이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아버지 상의 내용적 측면으로서의 아버지 자신의 개인적 문제는 주체적 사건과 결합하여 그 극복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극복 여부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아버지의 교육적 역량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논문의 한 가지 가정이다.

한편 더 소급하여 보면, 아버지의 개인적 문제는 원아버지가 상속해준 ‘근원적 요인’과 아버지가 수행한 ‘객체적 사건’(문제를 만드는 사건)의 조합으로 형성된다. 근원적 요인에는 다시 ‘정서적 기저’와 ‘제도적 조건’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아버지 상의 내용적 측면의 형성원인을 추적하는 것은 개인적 문제의 극복 여부와 관련하여 아버지들의 교육적 역량을 부각시켜준다. 개인적 문제를 가지지 않은 아버지는 아마도 없을 것이지만, 모든 아버지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앞서 언급된 신분적 열등감이라는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를 다시 보자. 그의 원아버지는 동학당에 속해 있었는데 부조리한 신분제 사회를 개혁하려다가 죽임을 당한다. 아버지는 원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신분제(‘제도적 조건’)에 대한 반항심(‘정서적 기저’)을 가지고, 동학잔당으로서 신분개혁을 위해 운동을 하다가 백정의 딸과 낙혼한다(‘객체적 사건’).

2) 이 아버지 상은 『토지』의 주요 등장인물의 하나인 백정의 사위 송관수의 경우이다. 인물선정의 기준으로 인하여 이 논문에서 송관수는 제외되었다.

신분차별이 엄존하는 시대에 아버지는 백정의 사위라는 사실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장남이 백정의 외손자라는 이유로 퇴학당하고 가출한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자기모멸감을 갖게 된다. 여기서 그의 개인적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신분적 열등감이며, 아들의 가출로 인한 자기모멸감은 파생적 문제이다. 그런데 결국 이 아버지는, 어떠한 주체적 사건을 계기로 하여 그리 되었는지 확연치 않지만, 자신의 저항적 삶이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에 어긋나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유서를 통하여 사후에 아들과 화해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연구는 ‘원아버지-아버지-자녀’의 삼대를 아버지 상에 접근하는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원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상속한 근원적 요인(정서적 기저와 제도적 조건)이 객체적 사건과 만나 아버지의 개인적 문제를 형성한다고 본다. 이 개인적 문제는 아버지의 주체적 사건을 계기로 하여 그 극복 여부가 판가름된다(아버지 상의 내용적 측면). 이에 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교육적 역량도 달라진다(아버지 상의 표현적 측면). 원아버지로부터 상속된 근원적 요인은 아버지가 가진 ‘원아버지의 이미지’에, 아버지 상의 내용적 측면은 ‘아버지의 자아상’에, 그리고 객체적 사건과 주체적 사건, 그리고 아버지 상의 표현적 측면은 ‘아버지의 행위’에 상응한다.

이하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토지』라는 소설 텍스트를 선정한 이유와 아버지 인물의 선정 절차를 서술한다. III장에서는 8명의 아버지 상을 기술한다. IV장 결론에서는 III장에서 제시된 아버지 상의 분석 결과를 논한다.

II. 『토지』의 선정 이유와 아버지 인물의 선정 절차

『토지』의 선정 이유는 그 소설의 특징과 아버지 상과의 적합성으로부터 온다. 대하소설 『토지』의 특징으로 강한 필진성, 깊은 진실성 그리고 넓은 다양성을 들 수 있다. ‘강한’, ‘깊은’ 그리고 ‘넓은’이라는 수식어는 동어반복처럼 보이지만, 필진성, 진실성, 그리고 다양성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소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는 그 특징들에 있어서 더 탁월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버지 상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아버지 개인의 고유한 문제와 그 극복 여부의 ‘내용적 측면’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아버지의 ‘표현적 측면’으로 구성된다. 강한 필진성은 아버지 상의 표현적 측면에, 깊은 진실성은 아버지 상의 내용적 측면에, 그리고 넓은 다양성은 많은 수의 아버지 상과 적합한 관련을 갖는다.

첫째로, 리얼리즘 소설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토지』는 미시적 묘사, 특히 대화의 생생함에 있어서 탁월한 특장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토지』는 아버지 상을 탐색하는 데에 생동감 있는 자료가 된다. 대화적 묘사, 인물의 행보, 감정의 교환 등에 있어서의 생생함은 『토지』가 택한 시공간적 배경의 미시사적 특징으로 논해지곤 하였다. 말하자면 소설 『토지』를 역사소설

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최유찬, 2008: 64-91; 최유찬 외, 2008). 물론 소설이 역사 연구의 사료나 문화기술적 연구의 자료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염상섭(1931)의 『삼대』는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료가 될 수 있고, 채만식(1937-8)의 『탁류』는 군산의 훌륭한 민족지적 소설 내지는 소설적 민족지로 볼 수 있다(변화영, 2004). 그런데 소설 내적 시대배경은 1897년부터 1945년까지 이면서, 1969년에서 1994년에 걸쳐 창작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가 일제 말기에 진주의 여고생이어서 당시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는 어디까지나 당대의 작품은 아니며, 더구나 작가 자신이 『토지』가 역사소설임을 부정하고 있다(최유찬, 2008: 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설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실을 단지 문학적 배경으로서만 취급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연구자는 『토지』의 미시적 성격을 취하기는 하지만, 역사적 측면에 주목하지는 않는다.

둘째로, 『토지』는 수작(秀作)이기 때문에 문학적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문학적 진실성이란 인간문제 내지는 등장인물 개개인의 고유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해명을 말한다. 토지는 과연 수작인가? 20세기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21세기에도 남을 한국소설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한국일보>, 1999년 1월 5일자). 당대의 시인(29명), 소설가(29명), 그리고 평론가(42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토지』가 단연 1위였다(김윤식, 2009: 7에서 재인용). 『토지』가 수작이라는 것은 그것이 대하소설이기 때문이 아니다. 앞의 설문조사의 결과에는 이상의 「날개」나 김승옥의 「무진기행」과 같은 단편소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작의 이유는 그 문학적 진실성에 있으며, 아버지 상에 초점을 두는 본 연구와의 관련성에서 보자면, 『토지』의 문학적 진실성은 아버지의 개인적 문제의 형성원인과 그 극복노력에 관한 치열한 탐구로부터 온다. 따라서 『토지』는 아버지 상의 피상적 관찰에 머물지 않고 심도 있는 해명을 가능케 하는 자료가 된다.

셋째로, 『토지』는 흔히 ‘대하(大河)’ 또는 ‘다하(多河)’ 소설(김진석, 1995: 236)로 불리거니와, 그것은 그 소설의 육중한 몸체와 다양성을 지칭하고 있다. 모두 5부로 된 이 소설은 솔출판사 본으로는 16권, 나남출판사 본으로는 21권에 이른다. 이 소설에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 인물만도 580명 정도이며, ‘사내, 나그네, 노인, 나무 장사’ 등의 이름으로 잠시 등장하는 인물까지 합하면 700명가량 된다(이상진, 1999: 4). 최소 2대 이상의 가족도 48가족이다(이진, 2012: 28). 이 방대하고 다양한 가족서사를 통하여 아버지 상이 풍부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버지 인물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등장인물에 대한 대체적 정보는 『토지사전』(임우기, 정호웅 편, 1997)의 ‘인물’ 부분(pp.451-561)과 『토지인물사전』(이상진, 2012)에 나와 있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독서를 통하여 연구자가 발췌 작성한 노트에 기초하였다. 첫째, 『토지』 속에서 아버지로서 등장하는 인물을 모두 추린다. 회상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모두 67명이다. 『토지』에 나오는 모든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다운 것은 아니다.

전통적 아버지의 표상과 같이 엄하기만 한 최치수와 을사보호조약 때 자결한 소지감의 부친, 동학군을 이끌며 운씨부인을 겁탈한 김개주와 같은 아버지도 있고, 아들에게 ‘패륜아’의 낙인을 받은 이상현과 불한당과 같은 김두만과 같은 아버지도 있으며, 살인을 저지른 김평산, 투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주정뱅이가 되어 딸을 술집에 팔아넘긴 심금녀의 애비도 있다. 둘째, 이 중에서 3대(원아버지-아버지-자녀) 이상의 경우를 선정한다. 이는 아버지로서의 인물 고유의 문제는 원아버지로부터 오며, 이 문제의 극복 여부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아버지의 교육적 역량에 영향을 주리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이 결과 23명의 인물이 다시 추려졌다. 셋째, 아버지는 아버지 상과 관련된 중심인물이고, 자녀는 아버지와와의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인물이므로, 아버지와 자녀는 소설 속에서 실지 등장하여야 하고, 원아버지는 아버지의 회상 속에 등장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아버지와 자녀의 실지 등장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11명의 아버지가 선정되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볼 때, 그 11명은, 조병수, 이용, 김한복, 이홍, 송관수, 김길상, 임명빈, 김한경, 조찬하, 김두만, 이상현 등이다. 넷째, 위 11명 중에서 아버지 상의 표현적 측면, 즉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다시 제거 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조병수, 이용, 김한복, 이홍, 김길상, 임명빈, 김한경, 조찬하 등 8명이 남았다. 송관수는 끝내 아들 영광과 직접 상면하지 못하고 유서만 남긴 채 홀로 죽는다. 이상현은 정석이나 강두메와 유사하게 자식들과 상면하지 못한다. 김두만은 둘째 부인 서울댁과 싸움을 벌일 때 큰아들 기성이와 잠시 상면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 논문에서 부자관계에 있어 실부인가 양부인가, 친자인가 양자인가 하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김길상의 양부 우관선사, 조찬하의 양자 쇼지, 김한경의 양부 김훈장, 김길상의 양녀 이양현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Ⅲ. 8명의 아버지 상

선정된 8명의 아버지들은 두 군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개인적 문제를 극복하고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 하는 아버지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이다. 전자의 아버지는 다시 ‘대자대비’(조병수와 이용)와 ‘대의명분’(김한복과 이홍)의 아버지로 구분된다. 후자의 아버지는 ‘관습적 도리’(임명빈과 김한경)와 ‘심정적 배려’(김길상과 조찬하)의 아버지로 구분된다. 연구의 초기에는 개인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도 실패한 아버지(김두만과 이상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배제되었다. 배제의 이유는 자녀교육 상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인물 선정 상의 원칙 때문이다.

1. 조병수

조준구와 홍씨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로서 곱추였던 병수는 외양 때문에 부모로부터 외면과 수모를 당하며 자란다. 자신의 비틀린 신체에 대한 병수의 수치심은 사회에 대한 연모의 정과 자신에 대한 사회의 노골적 혐오로 인해 더욱 커진다(16: 161).³⁾ 그의 정서적 기저는 수치심이다. 게다가 부친 조준구는 일체의 힘을 등에 업고 먼 일가가 되는 최참판댁의 재산을 탈취하는 악행을 저지른다. 그의 제도적 조건은 친일파 악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다. 병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비난하는 동시에 그러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16: 170). 이런 상황에서도 병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저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 병수의 개인적 문제는 자신의 아버지를 수치스러워 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그의 주체적 선택행위는 물에 몸을 던지거나 대들보에 목을 매다는 자살시도였다(5: 71). 하지만 그는 번번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

팔십 나이가 다 되어가는 말년에 조준구는 영락하고 쇠잔한 몰골로 통영에 사는 소목장이 아들 병수를 찾아가 몸을 의탁한다. 병수는 소목일도 접고 오로지 아버지를 홀로 수발한다. 노구의 아버지는 여전히 ‘잔인한 폭군이요 악마였다. 특히 아들에게는 가학적 쾌감으로 괴롭혔다.’(13: 191) 그럼에도 병수는 아버지를 정성으로 봉양한다. 어떻게 이러한 효도가 가능하였을까? 병수는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야 했으며,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혐오감을 버려야 했다. 그 일은 아버지를 일체의 생명의 하나로 여기는 것이다. 해도사와 소지감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해도사는 “조선생, 그러시는게 효도는 아닙니다. 더러 막 아보기도 하시오. 아버님의 악행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버님의 지옥행을 재촉하는 거나 다름없소.”라고 병수에게 정곡을 찔러오는 말을 한다. 이에 병수는 말한다. “저는 아마도 부친을 버렸을 겁니다. 미움을 버리면서 부친을 버린 셈이지요. 그, 그렇소. 부친에 대한 연민은 혈육에 대한 그런 아픔과는 다르오. 한 생명에 대한 것, 그, 그것 이외 아무것도 아닐거요.”(13: 224)

병수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버릴 수 있었던 것, 그리하여 노구의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하나의 생명체로서 연민의 감정을 갖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한, 필시 그는 불효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병수는 불효의 행위보다도, 부친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는 자살기도와 죽음의 밀바닥으로부터 생명에 대한 연민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병수는 자기 자신의 생명도 긍정하게 되면서, 당시 양반으로서는 하지 않을 소목장이 된다. 그에게 소목장은 단지 생계를 도모하는 일꾼이 아니라, ‘가락과 장단’(16: 166)의 정신을 갖춘 장인이다. 이 또한 그의 주체적 선택이다.

병수의 아들 남현은 불구의 아버지로 인하여 술한 상처와 수치심을 느끼며 자랐다(16: 155).

3) 술출판사 본, 제 16권 161면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아버지를 분신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아들이지만, 남현은 조부에 대해서만은 해소 못할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남현은 조부가 죽은 뒤에 부인에게 장례식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임종을 못했다고 흐느끼고(14: 292), 상복에 굴건을 쓰고 상장을 짊고 서서 곡을 하는데 말이다(14: 297). 원아버지의 장례문제로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의 격론이 벌어진다. 원아버지의 산소를 돌보지 않겠다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처음엔 이유를 들어 반박 하지만, 아들이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자 아버지는 단호한 명령을 내린다. “애비 뜻을 따라랴!” “그 뜻만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너, 이놈! 아버를 능멸하는 거냐?”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 서러운 세월을 어찌 저더러 잊으라 하십니까?” 결국 아들은 눈물을 흘리다 통곡한다. 결국 미리 마련해둔 장지에 조준구는 묻힌다(14: 297-298).

남현의 통곡에는 필설로 다 못할 뜻이 있다. 아들은 아버지의 효심의 실상을 어렴풋이 이해했을 듯하다. 아버지는 원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버렸고 다만 하나의 생명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되었다는 실상 말이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는 이러한 강경한 태도와 어조는 아버지가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역경과 그 극복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병수는 원아버지의 악행과 신체적 불구로 인한 고통을 생명에 대한 연민으로 승화시켜 자식에게 가르치는 준엄한 아버지이다.

2. 이용

용은 평사리의 평범한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에게는 서분이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용이 어렸을 때 천연두로 죽었다. 평민 서분을 양반 최치수가 연모했던 것처럼, 평민 용은 무당의 딸 공월선을 사랑했다. 이 신분상의 차이가 사랑이 혼인으로 맺어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용의 부모가 극심하게 반대한데다가, 효성이 지극한 용이 부모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탓이다. 용의 제도적 조건은 평민신분이라는 것이고, 그의 정서적 기저는 순종심이다.

강청택은 용의 조강지처이다. 남편 용의 인물이 흰하다는 것과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강청택의 월선에 대한 투기와 패악은 자심하다. 하지만 용은 혼례로 맺어진 강청택을 버릴 수 없다. 멀리 달아나고 싶은 용에게 환청처럼 돌아가신 부친과 모친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 놈아! 불효막심한 놈아! (중략) 니 나이 사십을 바라보는데 우짤라고 아직도 마음을 못잡노. 조강지처 박대하른 빌어 묵는다. 여자란 남자 하기 탓이지, 인연이 없는 계집을 생각 하믄 며할 것꼬?”(2: 352) 월선이 강청택의 패악에 쫓겨 간도로 떠난 뒤, 용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임이네와의 사이에서 생남(이홍)을 한다. 임이네가 생남한 그 해에 창궐한 호열자로 강청택이 죽는다. 용은 동정과 일시적 욕정으로 맺어진 관계이긴 해도 생남한 여인 임이네를 버릴 수

없다. 사랑으로 맺어진 월선과 마찬가지로, 의례로 맺어진 강청택이나, 아들의 생산으로 맺어진 임이네도 용에게는 버릴 수 없는 여인들이다. 용에게 객체적 사건은 사랑하는 여인과 혼인하지 못한 일과 혼외로 생남한 일이다.

임이네는 생명력과 이기심의 화신이다. 그녀는 ‘생존위협’의 극단적 경험에 의해 가장 나쁘게 될 수 있는 삶(이상진, 1999: 57)의 표본이다. 그녀는 마을에서 제일로 치는 미인이면서도 건강하여 일 잘하고 식색욕이 강하지만, 지독한 이기심으로 인하여 마을 아낙들의 구설수에 오른다. 남편 칠성이 살인죄로 처형되면서 마을을 떠나 몸을 팔아 살다가 다시 평사리로 돌아온다. 같은 해에 스무 살이나 나이가 많은 붓집장수에게 시집갔던 월선도 고향으로 돌아온다. 비록 용의 처도 아니고 홍의 생모도 아니지만, 월선은 용을 지극히 사랑하며 홍을 친자식처럼 정성껏 돌본다. 용도 월선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아들 홍에 대해서는 냉담함을 보인다.

용은 아들 홍과 제사를 지낼 때, 월선과 함께 임이네도 막아버린다. 용은 어린 아들 홍을 내심 ‘따스한 빛’(3: 212)으로 느끼지만, 제사 때 잠시뿐, 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일이 없다. 용은 아들 홍이 월선이나 죽은 강청택 소산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3: 212). 홍을 잘못 잉태된 생명으로 취급하는 까닭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잘못된 인연의 소산이기에 냉담할 수밖에 없었다. 용이 가진 개인적 문제는 뱀처럼 혐오스럽지만 생남한 여인 임이네에게 인간적 도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다. 나중에 간도로 이주한 후에 용은 임이네만 데리고 통포슬 근처의 문루구로 떠난다. 이때 용은 용정에서 국밥집을 하는 월선에게 아들을 맡긴다. 용은 문루구에서 월선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을 다 끝낸 뒤에 간다. 사랑이 지극하면 그 이가 언제 임종할 것인가를 미리 아는 것일까?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그 보다 용은 임이네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월선에게 도리를 다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사랑하는 여인이 임종을 다두고 있다고 해도 그 여인에게 달려가는 것은 용에게는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 바로 이러한 인고의 도리 때문이었을까, 월선의 임종장면(6: 285)은 이 소설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격조 높은’ 수준에 이른다(천이두, 1995: 197).

용은 월선이 죽은 후로 임이네에게 아무런 시비를 하지 않는다. 용은 점심을 자주 굶고 저녁상을 받으면 웃는다. 아들 홍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미칠 지경이다(7: 236-237). 하지만 용은 이미 월선이 죽음으로써 임이네에 대한 혐오와 미움을 초탈한다. 따라서 한창 방황기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산소에 오른다(7: 282-283). 아들의 심사는 복잡하다. 아버지는 “홍아.”하고 부르고, “니하고 나하고는 시작도 못하고…… 내가 늙어부린 것 같다.”고 말한다. 부자간의 정의도 나누어보지 못하고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말이다. 애욕의 여인들과의 인연으로 자신을 얽어 놓고, 이제 조상의 무덤만 아들에게 맡기고 떠날 것을 생각하니 아버지 마음에 아들이 안쓰럽다. 홍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껴 운다. “내 핏줄인데 설마 니가 나쁜 놈이야 되겠다.” 그리고서 “눈물이 헤프른 못쥘다. 남자는 몸부림 치고

땅을 쳐도 눈물만은 함부로 흘리는 기이 아니다. 그리고 또 내 부택[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고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정에 있는 ‘니 어매’(월선)를 이장해 달라고 한다. 아들은 흐느끼다 이제는 통곡을 한다. “아부지, 지가 잘못했소!” 아들은 아버지가 남자 중의 남자이고, 아버지가 거짓말 하는 것을 못 보았다고 고백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온전히 수용한다. 용은 사랑과 인간적 도리 사이에서의 고뇌를 극복하고 냉담하게 대했던 아들과 화해하는 대장부 같은 아버지이다.

3. 김한복

한복은 최참판가의 당주 최치수를 목 졸라 죽인 몰락한 무반출신 김평산의 차남이다. 아버지의 품성과 외모를 닮은 형 거복(김두수)과는 달리, 한복은 경위가 바른 어머니 함안댁의 품성과 외모를 이어받았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살인죄로 처형되고 어머니는 자살을 하는 모진 일을 겪는다. 한복의 심리적 기저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한(恨)’(10: 64)이다. 그리고 그의 제도적 조건은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다. 어머니 시신을 서서방, 윤보, 영팔이, 용이, 한조 등 동네 남정네들의 도움으로 매장한 뒤, 한복은 형과 함께 함안의 외갓집으로 보내진다. 그런데 형과는 달리 동생 한복은 평사리로 돌아온다. 코흘리개 시절에도 먼 길을 맨발로 걸어 돌아왔고, 10대가 되어서도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고자 추석마다 돌아온다. 이후 한복은 스무 살에 동네 사람들의 주선으로 거지 계집(영호네)과 혼인을 하고 고향에 머문다. 한복은 추석 제사를 지내러 온 십대에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향해 다짐한다. “어무님, 지는 형같이 안 될 겁니다. 좀 더 크면 우리 집에 돌아가서 산소 돌보고 살것습니다. 형은 버린 자식으로 생각하시어소. 어머님 말씀대로 착하고 어진 사람 돼서 남의 입정에 안 오르게 할 것입니다. 쉼[살인] 죄인 자식 소리 안 듣게 하겠됩니다.”(3: 113) 한복의 반복된 귀향과 고향에의 정착이라는 객체적 사건은 어머니의 산소를 향한 귀소본능의 발로이다.

한복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문제는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누구도 탓할 수 없이 자신이 홀로 지고 가야 할 천형에서 온다(7: 303). 그는 ‘칼날 밑의 숫돌처럼’ 마모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10: 76). 길상이 군자금 전달을 한복에게 처음 부탁하였을 때에도 한복은 ‘살인자인 아버지와 매국노인 형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고 그 일을 한다고 말한다. 길상이 한복에게, 살인자 아버지와 매국노 형을 두었다는 개인적 부채 의식 때문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민족독립 때문이라고 대의를 들어 말하여도, 한복의 심중에 있는 한은 온전히 위로받지 못한다. 그러한 군자금 전달은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일이기에, 낙인으로 생긴 한복의 상처를 치유시켜 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한복의 마음을 제대로 진무시켜 주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은 그의 아들 영호가 진주농고 재학 시 맹휴계획의 주동자로 옥고를 치르고 퇴학당하는 사건이다. 한복

은 마을에서 영웅의 아버지로 여겨진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한 장한 일은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영웅적 거사는 아버지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주체적 사건으로 된다(10: 63-4).

이후에 한복은 서둘러 영호를 영산댁의 양녀 숙이와 혼인시킨다. 영호의 혼인이 급히 이루어진 데에는 한복의 형 거복이 영호를 서울에 보내어 유학시키면 어떠한 편지가 당도했기 때문이다. 백부의 조카에 대한 호의는 매국으로 벌어들인 돈에 기반한 것이기에, 한복은 아들을 고향에 묶어두고자 혼인을 서둔 것이다. 그런데 영호는 부인 숙이가 일본 유학생 윤국이와 빨래터에서 가끔 말을 주고받는다든 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급기야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아버지에게 기대어 서울로 유학을 가겠다는 뜻을 밝힌다(12: 199-202).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한다. “니 큰아버지가 어떤 사람고? (중략) 만주서 니 말따나 내 민족을 위해서 항거하는 사람이면은 내 땅때기를 팔아서라도 니를 보내주겠다. (중략) 내 한은 옷으로도 못풀고 밥으로도 못푼다.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나라에 대한 충절심이 남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다. 내 자식놈이 또 한을 냄길까봐 그기이 무서븐 기다. 자자손손 얼굴 치키들고 살 수 없게 될까 싶어서 두려븐 기라.”(12: 202)

아버지가 말하는 민족독립이라는 대의 이면에는 자신이 평생 겪어온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자식이 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절절하게 배어 있다. 아버지는 원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자신에게 한을 남겼듯이, 백부가 부당한 돈으로 아들을 도움으로써 한을 남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한복은 수치스럽고 한스러운 자신의 고통을 아들이 다시 겪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아버지이다.

4. 이홍

이용의 본처 강청댁이 호열자로 죽던 해에 태어난 홍은 혼외자식이다. 그것도 최참판댁의 당주를 죽인 살인공범자 칠성의 본처 임이네가 홍의 생모이다. 홍의 아버지는 잘못 태어난 아들에게 냉담하였으며(4: 15), 이로 인해 어린 시절에 홍은 아버지를 두려워한다(4: 15). 하지만 홍은 제사 때만은 근엄한 아버지에게 애정을 느꼈고, 임이네와 월선 사이에서 감정적 줄다리기를 할 때마다 아버지를 ‘든든한 기둥’(4: 283)으로 느꼈다. 용정으로 이주한 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악하고 이기적인 임이네로부터 월선을 놓아주기 위해 임이네만을 데리고 통포슬 근처의 문루구로 떠난다. 이후 월선의 손에 맡겨진 홍은 똑똑하고 민족의식이 강한 친구들과 함께 간도의 사립학교를 다니며 순조로운 심대를 보낸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유년기의 정서적 기저는 냉담함이지만, 홍은 월선의 헌신적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의 냉담함을 중화시킨다. 하지만 홍에게 상속된 혼외자식이라는 제도적 조건은 잠복된 채로 남아있다.

홍이 “옴마[엄마]”라고 부르던 월선이 용정에서 죽고, 서희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홍이도 부모와 함께 진주로 온다. 홍은 생모가 버티고 있는 집에 가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느낀다. 월선이 죽은 뒤, 아버지는 임이네에 대한 미움마저 넘어서서 ‘돌부처’와 같지만(7: 75), 혈기왕성한 열아홉 살의 홍은 생모와 난투극을 벌이기도 하고(7: 81), 월선의 눈을 닮은 염장이를 능욕하기도 한다. 홍의 젊은 시절의 개인적 문제는 생모에 대한 증오에 있으며, 이는 이미 사별한 월선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더욱 증폭된다. 김훈장의 외손녀 보연과 혼인한 후에 처가식구들이 사는 통영에서 화물차 운전수를 하던 홍은 일본으로 시집 간 장이와 하룻밤을 보내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 이후 임이네가 처절하게 죽음과 싸우다가 임종함으로써 생모에 대한 증오는 연민과 슬픔으로 바뀌고, 이어 아버지의 죽음으로 홍은 자유로이 어디든 떠날 수 있는 몸이 된다. 홍은 식솔을 데리고 월선의 숙부 공노인이 있는 간도로 간다.

장성한 홍의 개인적 문제는 무엇인가? 아버지와 의 냉담한 관계도 풀리고, 생모와의 악연도 끊어진 뒤에 홍의 개인적 문제는 ‘부친의 자취가 사라지고 있다’(10: 73)는 것, 즉 자신이 사람의 도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제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러 그는 ‘이기주의자’(10: 272)가 된 자신을 발견한다. 이는 돌아가신 원아버지와 의 비교를 통하여 가능해진다. 이것이 그의 주체적 사건이다. 간도의 상의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경험, 평사리에 명절을 쇠러 왔다가 왜 헌병에 끌려가 겪은 고초, 일본에서 겪은 민족 차별대우 경험 등으로 인한 반일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8: 407), 홍은 제 식구 건사하고 직장 일을 하기에도 벅찬 평범한 남자로 살아왔다. 이것이 홍이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현실이다. 홍은 간도로 떠나기 전에 김범석(9: 408), 송관수(9: 412), 장연학(9: 457), 김한복(10: 76) 등과 만나면서 간도에 가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만주의 한 술자리에서 상의학교의 동창인 강두메가 사회주의를 주장할 때, 술잔을 그에게 던지면서 홍은 ‘인간성’을 주장(16: 104)하는 것을 볼 때, 홍은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도 민족독립 운동에 상당히 개입하고 있다는 것과 원아버지가 평생 보여준 인간적 도리를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기주의라는 개인적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

간도에서 공노인이 죽은 후에, 홍은 그 유산을 물려받아 목재상으로 돈을 불리고 신경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차린다. 가족이 조반상에 둘러 앉았을 때, 큰딸 상의가 창씨개명을 하면 자신은 이름에 들어있는 상(尙)자를 따서 나오꼬[尙子]라고 하고 싶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상의(尙義)’ 그대로도 괜찮다고 한다. 딸이 그것은 ‘나오요시’라는 남자이름이어서 싫다고 하자, 아버지는 “나라 없는 백성이 남자 이름 여자 이름 가려서 뭇하나.” 하고 통명스레 말한다. 딸은 아버지에게서 비애 같은 것을 느낀다(13: 42). 또 상의가 백의의 천사(간호부)가 되고 싶은 내색을 하자, 아버지는 딱딱한 음성으로 “그 따위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한다. 딸이 계속 간호부가 되는 것은 애국하는 길이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고 말하자, 아버지는 “그 따위 소리 두 번 다시 했다가는 매맛을 줄 알아라!” 하고 소리를 지른다(13: 390-391). 아버지는 일본의 세력권인 신경에서 비밀

리에 독립운동을 지원해온 터이기에 가족에게도 위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다만 단호하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평소에 흥은 자신의 부친 용을 닮아 처자식에게 자상하면서도(13: 41), 대의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일에는 엄격했다. 아버지 없이 진주 ES여고로 전학한 큰 딸 상의는 사카모토 선생과의 갈등 때문에 힘겨운 중에 항상 아버지를 떠올린다(16: 57-58, 63). 흥은 일신과 일가만을 위하는 이기적 삶을 넘어서서 민족적 대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대의를 처자식에게는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여 가슴앓이를 하는 아버지이다.

5. 임명빈

명빈은 구한말 역관 출신인 임덕구의 아들이다. 그는 고수머리에 큰 두상을 가졌으며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인상을 가졌고, '교육자 특유의 안정감'을 풍겨준다(8: 162). 3.1운동 때에 대구에서 줄지에 돌아가신 명빈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선생의 길을 걸을 것을 권했는데, 아들은 그 권고에 자존심을 상해하지는 않았다. "선생질이나 하는 게야. 애길 들으니까 공연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쓸데없는 짓 그만두구. 자고로 문사(文士)는 가난하다는 게 통념인데 그나마 저저이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천부의 자질이 있어야. 선생으로 취직하도록 해. 장차 교장까진 될 수 있겠지."(6: 71) 이처럼 임덕구는 현실적인 인물이면서도, 일본과의 합방 후에는 직책을 버린 지조 있는 인물이고(5: 107), 아버지가 권한 교직은 나름 현실적이면서 떳떳한 직업이다. 명빈의 심리적 기저에는 부친이 물려준 지조가 있다. 그는 양심적 지식인을 자처한다. 한편 역관으로서의 아버지의 현실적 감각이 보여주듯이 그의 제도적 조건은 현실타협적인 처세이다. 아버지의 권고대로 교장이 되기는 했으나, 그가 교장으로 근무한 곳은 친일귀족 조병모 집안이 소유한 학교이다. 조병모의 장남 조용하는 명빈의 매제였던 것이다.

명빈은 자신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이상현에게 자신이 상현만큼의 문제가 있었다면 훈장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8: 163). 아버지 임덕구가 간파했듯이 명빈에게 문학적 재능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수신도덕'의 교육자 기질과 더불어 '문학청년'의 낭만적 기질도 다분히 가지고 있다. 후자의 기질은 기혼의 여동생 명희와 명희가 한때 사랑했던 상현과의 사이에서 이별주가 오가는 '사랑의 의식'을 명빈이 주선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만주로 떠나 방랑하는 이상현에게서 명빈은 열등감을 느끼는데, 그 실체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가 쓴 소설과 관련된 것이다(9: 377).

상현에게 문학적 열등감을 느끼는 명빈은 독립운동에 연루된 주위 인물들에게서도 열등감을 느낀다. 친구 서의돈을 포함하여 십여 명의 주위 사람이 '계명회 사건'으로 검거되었을 때, 명빈은 민족의 장래에 대한 절망감과 더불어, 보신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비애를 느낀다(8: 401-2). 그리고 예비검속령으로 다시 서의돈 등이 검거되었을 때에, 물론 명빈도 경찰에 시달림을 당하

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패배감은 극에 달한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쓰레기’라고 말하며, 자신이 소용되는 일은 ‘일회용폭탄’뿐이라고 누이 명희에게 소리친다(14: 148).

명빈의 개인적 문제는 문학이든 독립운동이든 자신의 능력이나 지조의 부족으로 인한 열등감과 패배감이다. 이는 그의 현실타협적 성향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된다. 명빈은 여동생 명희를 조병모 남작 댁으로 출가시키고 사돈댁에서 설립한 영화학교의 교장을 하지만,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여동생을 지켜보면서 죄책감을 느낀다. 그 와중에 매계 조용하의 불륜사건이 터짐으로써 명빈은 교장직에서 물러난다. 그는 나름 지조를 지키며 비굴하지 않으려 하지만, 많은 지식인들이 그러했듯이 너무 오랫동안 현실타협적으로 살아왔다.

문학도, 독립운동도, 그리고 직장도 내려놓은 명빈은 ‘바늘이 없어진 시계판’(14: 157) 처럼 삶의 의지를 보이지 못한다. 여동생 명희는 명빈에게 신병의 치료를 위해 시골로 내려가 정양을 하기를 권하고, 명빈은 막내아들 희재와 최길상과 함께 지리산 도솔암으로 떠난다. 희재는 원로에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될까 하여 전전궁궁이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삼랑진에서 진주로 가는 야간기차 속에서 명빈은 진주의 최참판댁에 아침에 당도하여 하루 묵는 일을 염치없다고 말하면서, 진주의 여관에 잠시 쉬었다가 바로 하동으로 가자고 한다. 아들은 최참판댁과의 각별한 관계로 보아 폐될 것이 없고, 아버지의 건강도 염려되지 진주 최참판댁에 들러 쉬었다 가자고 강하게 말한다. 아버지는 그 댁 바깥주인(김길상)이 사상범 예방구금으로 감옥에 있는 중이니 들르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고, 아들은 십 수 년 전에 김길상의 장남 환국이 중학교를 다닐 때 자신의 집에서 통학하게 해주었던 일(8: 179)로 인해서 집안 간에 친밀함이 있으니 들르는 것이 옳다고 한다. 아버지는 우환에 대한 배려에서 방문을 피하자 하고, 아들은 후의를 오래 주고 받았던 각별한 관계를 생각해서 방문을 하자고 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갈에 풀이 확 죽는다. 명빈은 현실적으로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패배감을 느끼고, 문학적 재능에 있어서도 열등감을 느끼지만, 자식에게만은 대쪽같이 관습적 배려의 도리를 가르치는 교육자적 아버지이다.

6. 김한경

한경의 양부 김훈장은 봉건제적 질서에 충실한 고루한 향반출신으로서 ‘백 년 전의 상식’뿐 어떠한 시세판단도 하지 못하는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는 인물이지만, ‘상민들을 하시하지 않고 재물 보기를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개똥같이 보았고 땀 흘려 농사짓는 생활에 자족’(8: 83)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김훈장은 조준구의 횡포를 견디다 못하여 의병을 일으킨 무리에 가담하여 간도로 건너간 뒤, 힘을 잃은 노인으로 연명하다가 죽는다. 김훈장의 가장 중요한 삶의 과업은 선영봉사를 할 후손을 두어 가통을 잇는 것이었다. 그는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지만 아들은 모두 죽었고, 부인마저 심화병으로 죽었다. 김훈장은 ‘가을만 되면 도지는 병’(2: 269)처럼 양자를

찾아다니는데, 그는 결국 화전민으로 전락한 십촌이 넘는 일가붙이 형제를 찾아낸다. 형제 중에서 29세나 먹은 총각 동생이 김훈장의 양자가 된 한경이다. 강봉기의 첫인상에 따르면, 평사리에 처음 나타났을 때 한경은 키가 큰데 비하여 무척 말라서 ‘버마재비’ 같았고 머리도 좀 모자라 보였다(3: 124). 김훈장은 산청의 가난한 선비의 딸을 데려와 한경과 혼인을 시킴과 동시에,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딸 점아기를 그 선비의 딸의 사촌 오라비에게 시집보내어 겹사돈을 맺는다(3: 127). 김훈장은 양자를 얻어 근심을 덜고 나자 손자 욕심을 낸다. 김훈장의 바람대로 한경은 아들 범석을 생산한다.

한경은 ‘변변히 글도 배우지 못하였고 다만 김훈장이 하라는 대로 꾸벅꾸벅 순종하는 이외에 아무 능이 없는 위인이었다.’(3: 128) 그의 정서적 기저는 순종이고, 그의 제도적 조건은 선영봉사의 소명이다. 그는 양아버지 김훈장이, 사람의 도리, 조상의 행적, 양반가의 법도, 시국담, 한탄 등을 몇 시간이고 말할 때, 무릎을 꿇고 앉아 경청하며 참을성 있게 들었다. 한경은 후일에 조준구에 반대해 일어난 의병 일을 회상하는데, 그 회상 속에서 김훈장은 아들 한경에게 “너는 애비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겠느냐?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그때는 어찌겠느냐.”고 묻는다. 아들 한경은 “아버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강연히 대답한다(14: 128-9). 김훈장은 ‘신주와 손자를 안겨 아들 내외를 산청 사돈댁으로 떠나보’내고서야(3: 387), 의병에 가담하며, 서회 일행과 함께 간도로 떠났던 것이다.

한경은 ‘선영 모시고 가만히 엎드려’(8: 43)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선불리 일본에 항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생각이다. 한경에게 골수처럼 박힌 생각은 오직 선영봉사이며, 그의 개인적 문제는 양부 김훈장의 시신을 만주에서 고향으로 모셔오지 못한 것이다. 한경은 송관수의 유해를 고향으로 모셔온 송영광의 소식을 들은 후, 아들 범석에게 원아버지 산소의 이장문제를 거론한다(11: 167). 잠긴 목소리로 말하던 한경은 급기야 오열을 한다. 범석은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부친이 이리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처음 보았고,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와 다른 까닭이다. 이장도 큰일이지만, 범석은 ‘그런 조상 숭배나 효도를 옳다 생각지 않게 된’ 것이다. 아버지가 ‘선영(先塋)’, 즉 조상의 무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할아버지의 이장을 도모하는 것이 범석에게는 구태의연한 형식주의로 보인다. 이리보면 한경의 개인적 문제, 즉 김훈장의 유해를 고향으로 모셔오는 일은 여건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사소한 문제이다. 아들 범석에게조차 원아버지의 산소 이장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일 뿐이며,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스스로 ‘농본주의자’라고 말하는 범석은 청년 시절부터 인품이 중후했고 비록 보통학교 졸업이 그의 학력의 전부였지만 한학을 했고 신학문도 독학으로 대학 졸업 이상의 식견을 가지고 있다(14: 90-2). 그는 할아버지 김훈장처럼 동네의 대소사에 조언을 하는 지도자이면서(11: 168), 홍이나 윤국이 존경하면서 가르침을 청하는 선구자이기도 하다(11: 124-7; 14: 90). 마음으로 완

전히 승복한 것은 아니지만, 아들은 “아버님 뜻대로 하십시오. 소자도 힘자라는 데까지.” 하고 말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데, 이는 아버지의 생각에 설득되어서가 아니라, 원아버지에 대한 선영봉사를 못 다한 죄책감을 오열로 드러내는 아버지의 감정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훈장의 외손녀 사위가 되는 흥의 도움으로 이장이 이루어진 후에, 아들은 ‘한결같은 생각 속에 망설임 없이 간혀서 살아온 부친에 대하여 어떤 안쓰러움’(14: 130)을 느낀다. 사람이 좀 모자란다고 싶었던 환경은 양부 김훈장에 대한 효도와 일문을 지키는 데에 한 치 소홀함이 없었지만(14: 87), 인습적 전통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 아버지이다.

7. 김길상

길상은 구레 연곡사라는 절에 버려져 주지 우관선사의 손에 키워졌다. 어린 시절에 심부름꾼으로 최참판댁에 보내진 후, 그 댁의 유일한 혈육인 서희와 함께 성장한다. 가복의 신분이 길상의 제도적 조건이다. 최참판댁의 당주이자 서희의 부친 최치수가 살해당하고, 최치수의 모친인 윤씨부인마저 호열자로 죽은 뒤, 최참판댁의 먼 일가가 되는 조준구가 그 댁의 재산을 탈취한다. 조준구의 횡포에 반대하는 평사리의 일부 사람들과 함께 서희와 길상은 용정으로 이주한다. 서희는 할머니 윤씨부인이 장롱 다리 밑에 숨겨둔 은괴를 종자돈으로 하여 공노인의 도움을 받아 사업에 성공한다. 서희가 탄 마차가 사고를 일으킨 후, 길상은 서희의 청을 받아들여 혼인을 한다. 서희는 조준구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 서희는 내심 이상현을 사모하고 있으면서도(4: 28) 길상과 낙혼을 한 것은 최씨 가문의 보존과 조준구에 대한 복수극에 길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길상은 서희에 대해 연민의 정 때문에 혼인을 수락한다. 길상이 객체적 사건으로서 양혼을 선택한 것은 안락한 삶을 바래서가 아니라, 다만 천애고아 서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길상의 심리적 기저는 ‘정(情)’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길상은 용이 아저씨 앞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감회를 어지러이 늘어놓는다(4: 307). 그는 ‘누구든 사람을 보면 (중략) 그 사람의 냄새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냄새의 핵심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는 관습적 잣대가 아니라 ‘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길상에 따르면 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거짓말쟁이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성정과 감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길상은 그것을 양부 우관선사의 ‘겉에 질린 눈’에서 처음 발견하였다고, 그것이 ‘아버님의 눈’이었다고 말한다. 부영이를 따라 숲을 헤매다가 캄캄해 진 뒤에 절로 돌아 온 길상에게 우관선사는 호랑이한테 물려가지나 않았을까 겉에 질린 눈을 하며 몽둥이를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래서 길상은 상전의 은혜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정을 느껴 잘 해드린 것이라 한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의 무차별적인 정은 자신의 신분에 합치하는 방향과 불합치하는 방향으로 갈라져 흐르게 된다. 전자는 ‘김환, 우관, 혜관, 관수, 석이, 용이, 영팔노인 등등’으로 대표

되는 '뜨거운 동족'에게 향하는 정이요, 후자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가솔들로 향하는 정이다. 길상이 용정에서 환향하는 부인과 자식들을 버리고 독립운동 조직에 합류하는 것은 동학,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의 어떤 대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더 큰 자아를 선택한 귀소행위였다(13: 296). 이러한 점이 양반출신의 이동진이 '산천'을 위하여 가솔을 버리고 독립운동을 한다고 할 때와 다른 점이다. 길상은 대의를 위하여 독립운동 조직에 합류한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사람들이 고아로 자라 최참판댁에서 종살이를 했던 길상과 유사한 신분집단이기에 그러한 것이다. 계명회 사건으로 수감된 후에 출옥하여 진주로 내려 온 길상은 소지감이 주지로 있는 지리산 자락의 도솔암에서 원력을 걸고 대자대비로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관음보살의 탕화를 그리는데, 이 또한 귀소행위이다. 길상은 자신이 조성한 관음탱화를 예술작품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신이 조성한 탕화에 대하여 길상이 느끼는 '쑥스러움과 위축됨'은 길상의 비원, 즉 민중을 도탄에서 구하고픈 간절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한 금어(金魚)가 그린 탕화의 미력에 대한 자각에서 온다.

후일에 길상은 계명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출옥하여 서회가 터를 잡은 진주로 내려오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복수의 도구는 아니지만, "신분의 차이, 생활의 빛깔이 다르다"는 것을 도처에서 느낀다. 그는 '어찌 일개 필부로 살지 못하였나!'(12: 211) 하고 한탄을 하는데, 그것이 정과 신분의 자연스러운 합류를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자 개인적 문제이다. 길상의 문제는 타파되어야 한다고 믿는 강약의 질곡(일본과 조선)과 신분의 질곡(봉건적 질서)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온다. 부인은 가문의 유지를 위해 친일에 가담하고, 두 아들은 일본에서 유학을 한 것이다.

길상은 한편으로 동류의 신분집단과 합류하여 더 큰 자아를 찾기 위해 자식들을 버리는 아버지이다. 다른 한편 길상은 다시 만난 장성한 자식에게 신분의 굴레로 자식들이 받을 상처를 근심하는 아버지이다. 그는 큰 아들 환국이 아버지의 신분에 대해 가질지도 모르는 열등감을 우려하고, 양녀 양현이 아비 없는 자식이기보다는 양반 출신의 생부(이상현)를 두었다는 것이 혼사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적어도 큰 아들의 기억에 신분의 봉건적 질곡으로부터 강요되는 비굴함을 행동으로 보인 적이 없던 아버지(13: 307)는 자식의 장래문제에 이르러서는 한없이 약해진다. 길상은 정으로 인하여 양혼을 한 뒤, 신분으로 인하여 가솔에게 이질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신분으로 인한 상처를 자식이 받지 않도록 심정적 배려를 하는 소심한 아버지이다.

8. 조찬하

찬하는 친일귀족 조병모 남작의 차남이다. 찬하의 개인적 문제는 나중에 형수가 된 임명희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부터 온다. 하지만 이 사랑은 연애를 통하여 발전된 것은 아니고,

형 용하의 질투심이 조작한 측면이 강하다. 물론 찬하와 명희가 서로 아무런 호감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용하와 혼인을 하기 전의 명희가 강선혜와 함께 동창 윤덕화를 만나러 조병모 남작의 고대광실을 방문했을 때, 찬하는 명희를 처음 보게 되는데(7: 369), 이후에 찬하는 ‘영혼의 목마름에서 여자를, 아니 명희를 원했다.’(10: 137) 용하와 혼인한 명희도 일본 여성과 혼인한 시동생과 우연히 만난 서울역 광장에서, 찬하와 혼인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10: 136). 하지만 이러한 상호호감은 찬하의 형이자 조병모 남작 맥의 실질적인 당주인 용하의 비틀린 애정으로 인하여 명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찬하가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면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용하는 ‘여자를, 아내까지 포함하여 일시적 혹은 반영구적 소유로 간주하’는 인물로서, 이혼을 하고 명희와 재혼을 한 후에도 홍성숙 같은 여인을 농락한다. 용하의 명희에 대한 집착은 다만 연적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데, 그 연적으로 동생 찬하가 말려든 것이다. 찬하의 부친 조병모도 며느리와 차남의 불미스런 관계의 김새를 불쾌해 한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상속된 찬하의 심리적 기저는 억울함이다.

찬하와 명희의 결합은 명희가 찬하의 형수가 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다. 명희는 역관의 딸이기에 남작의 집안으로부터 청혼의 상대가 될 수 없다. 모든 실권을 가진 장남 용하는 자기 주도적으로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할 수 있지만, ‘부모와 형에게 소속된 존재였던’ 찬하에게는 혼인의 대상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10: 138). 찬하가 친일귀족의 차남이라는 것은 그의 제도적 조건이다. 조병모 부처는 형제가 한 여자를 원한다는 수치스런 가문의 내막이 외부로 새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명희를 요물시 했기 때문에, 찬하는 형이 명희와 혼인하고 얼마 후 일본으로 도피한다. 찬하는 지도교수의 질녀인 노리코와 혼인한다. 이 혼인이 찬하의 객체적 사건이다. 일본 여성과의 혼인은 찬하가 조선인 이기는 하지만 귀족집안의 자제라는 점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 혼인은 찬하로서는 조씨 일문을 위한 자기희생적인 것이었고, 조씨 일문으로서도 추문을 잠재우는 좋은 방도였다.

찬하는 부인 노리코와의 사이에 딸 후미[美美]와 아들 쇼지[莊次]를 두었다. 일인 오가다 지로와 조선인 유인실 사이에서 태어난 쇼지는 찬하와 노리코의 양자이다. 노리코는 쇼지의 생부와 생모를 알지 못하며, 쇼지는 자신이 양자라는 사실을 모른다. 생부 오가다 지로는 찬하의 아들로만 알았던 쇼지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며, 아이를 낳자마자 찬하에게 입양을 부탁한 채 독립운동에 투신한 생모 유인실은 만주에서 오가다 지로에게서 아들 쇼지가 찬하의 양자로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쇼지는 이때 12살이다.

쇼지는 어떻게 태어났던가? 용하에게 능욕을 당하고 절망적 심경에서 자살을 시도한 후에 통영에 머물고 있는 명희에게 오가다 지로, 유인실 그리고 찬하가 방문한다. 찬하는 명희의 차가운 응대에 황망히 홀로 귀성하고, 오가다 지로와 유인실만 남겨진다. 인실은 쇼지를 잉태한다. 사상적으로 일체감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 식민지 조선여인인 인실은 일인 남성인 오가

다 지로와 혼인할 수 없었다. 찬하는 인실에게서 양심적 조선여인의 고뇌와 오가다 지로와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을 공감한다. 더구나 이 아이는 찬하에게 형수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응하는 결실로 보였다. 그는 지극한 정성으로 임부 인실을 조력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부인의 의혹을 무릅쓰고 아이를 양자로 들인다. 그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은 쇼지라는 양자에 의해 치유되는 듯하다. 찬하와 중학생이 된 쇼지와 대화는 친근하고 명랑하다(15: 279-282). 그러나 오가다 지로와 평소부터 친분이 있던 찬하는 쇼지를 생부에게 돌려보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아들의 존재를 생부에게 알리고,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생부와 아들만의 만주여행을 주선하는 것이 계부 찬하의 과업이다. 양자이지만 특별한 정성으로 키운 아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기른 아버지에게 힘겨운 일이다. 그래서 오가다 지로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쇼지를 맡아달라고 찬하에게 부탁할 때, 찬하의 목소리에는 탄력이 실린다(13: 476). 그만큼 찬하도 쇼지가 자신의 아들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다. 찬하는 자신의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보상으로 양자로 들인 아들을 정성으로 키운 후에 그 아이를 생부에게 떠나보내려 하는 서글픈 아버지이다.

IV. 결론

인물의 선정기준에 따라 채택되어, 본론에 기술된 조병수, 이용, 김한복, 이홍, 임명빈, 김한경, 김길상, 조찬하 등 8명의 아버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문제의 고유성을 중심으로 볼 때 8가지 아버지 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병수는 원아버지의 악행과 신체적 불구로 인한 고통을 생명에 대한 연민으로 승화시켜 자식을 설복시킨 준엄한 아버지 상을, 용은 사랑과 인간적 도리 사이에서의 고뇌를 극복하고 냉담하게 대했던 아들과 화해하는 대장부 같은 아버지 상을, 한복은 민족독립을 위한 비밀스런 일을 하면서 평생 인고한 수치스럽고 한스러운 자신의 고통을 아들이 다시 겪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아버지 상을, 그리고 홍은 일신과 일가만을 위하는 이기적 삶을 넘어서서 민족주의적 대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대의를 자식에게는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여 가슴앓이를 하는 아버지 상을 보여준다. 또한 명빈은 현실적으로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무능감을 느끼고, 문학적 재능에 있어서도 열등감을 느끼지만, 자식에게만은 대쪽같이 관습적 배려의 도리를 가르치는 교육자적 아버지 상을, 한경은 효도와 일문을 지키는 데에 한 치 소홀함이 없었지만 인습적 도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 아버지 상을, 길상은 정으로 인하여 양혼을 한 뒤, 신분으로 인하여 가솔에게 이질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신분으로 인한 상처를 자식이 받지 않도록 마음 쓰는 소심한 아버지 상을, 찬하는 자신의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보상으로 양자로 들인 아들을 정성으로 키운 후, 그 아이를 생부와 생모에게 떠나보내려 하는 서글

픈 아버지 상을 보여준다.

이상의 8명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8가지 아버지 상은 그 개인적 문제의 극복 여부, 즉 아버지 상의 내용적 측면에 따라 두 개의 군으로 다시 나뉜다. 병수, 용, 한복, 홍이 보여주는 처음 4가지 아버지 상은 개인적 문제를 극복한 아버지 상이며, 명빈, 한경, 길상, 찬하 등은 개인적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아버지 상이다. 이 두 군에 속하는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발휘되는 교육적 역량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극복한 아버지들은 자녀와 대화를 하는 대면 상황에서 적극적 호소력에 상응하는 자녀의 심정적 공감을 성취하지만,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대면 상황에서 단지 소극적 호소력에 상응하는 표면적 동조만을 성취한다. 가령, 병수의 아들 남현, 용의 아들 홍은 아버지 앞에서 울다 못해 통곡을 한다. 한복의 아들 영호는 교유하는 김희나 몽치에 비해 성정이 협애하였지만 아버지의 설득 이후에 원만한 인격으로 변화하며, 홍의 딸 상의는 아버지에게 철없는 발언을 하여 그리 혼이 났으면서도 진주 ES 여고에 재학 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의 기억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이에 비하여, 명빈의 아들 희재, 한경의 아들 범석은 아버지의 말에 충분히 공감하지 않는다. 또한 길상의 아들 환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만 아버지를 오히려 걱정하며, 아버지가 그린 탕화의 원력과 가치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 찬하의 아들 쇼지도 아버지의 명에 따르면서도 자신과 오가다 지로만을 남겨놓고 다른 길을 떠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하나의 일반적 사실로서 아버지 상의 내용적 측면이 그 표현적 측면을 규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 문제를 극복한 아버지들의 경우, 그 극복의 주체적 사건과 더불어 볼 때, 생명에 대한 연민과 지고한 사랑에 의한 극복의 경우(조병수와 이용)와 민족독립이라는 대의에 의한 극복의 경우(김한복과 이홍)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병수는 생명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깨닫고 수치심을 극복했고, 용은 지고한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하였다. 이 두 인물의 개인적 문제의 극복 계기는 ‘대자대비’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한복과 용은 민족독립이라는 대의에 의해 치욕적 낙인과 이기주의적 일상으로부터 구원된다. 그리하여 이 네 명의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말하는 효도, 친밀성, 명예, 나라 없는 백성의 비애 등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자녀의 심정적 동조를 이끌어 낸다. 그런데 개인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나머지 네 명의 아버지들의 경우,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자녀에 대한 교육적 역량의 감퇴이다. 명빈과 한경은 관습적 배려의 도리나 인습적 전통의 도리 밖에는 자녀에게 보일 수 없었는데, 자녀들은 아버지의 메시지에 충분히 동조하지 않는다. 길상과 찬하가 자녀에게 보이는 아버지로서의 심정적 배려는 어긋난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현대 가정교육의 주체인 아버지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언급하고

자 한다. 개인적으로 문제 또는 인간적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버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적 주체로서의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훈육하는 아버지, 멘토와 같은 아버지, 친구와 같은 아버지 등등, 그 어떤 아버지 상을 지향하더라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구체적 장면에서 아버지의 교육적 역량이 발휘될 것이다. 이 영향력의 가능성은 아버지가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극복했는가 하지 못하였는가에 따라 판가름 난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행하는 가정교육의 성패는 무엇보다 아버지 자신의 자기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다.

이 시대의 아버지가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극복할 길은 무엇인가? 극악한 행위를 한 부모를 두었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었던 소설 속의 아버지들의 삶은 과장된 것이며 특별한 것일지도 모른다. 시대가 바뀌어 오늘날 아버지들은 선대에 비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왔다. 그만큼 개인적 문제의 깊이와 강도는 알아지고 약해진 듯하다. 그렇기는 해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버지들은 나름의 개인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개인적 문제가 다양한 만큼 다종다양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자기교육의 길이라는 것이다. 『토지』는 현대의 아버지들에게 관습적이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원만한 인격의 도야와 더불어, 생명에 대한 연민과 애정 그리고 사회와 역사에 대한 비전과 헌신을 갖춘 아버지 상을 제시한다. 이 소설은 이 시대의 아버지에게 협애한 내면적 자아를 넘어서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확장된 자아를 요청한다.

참고문헌

- 공진수(2006). 아버지됨에 관한 연구: 기독교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권재희(2006). 그림책 관련활동에 따른 유아의 아버지상 변화.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영철(2014). 텔레비전 드라마 <돈의 화신>에 나타난 '아버지의 이미지'의 극복과 그 교육적 시사점. **아시아교육연구** 15(3), 71-96.
- 김영철, 양진희(2014). '슈퍼맨':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像). **아시아교육연구** 15(4), 81-107.
- 김윤식(2009). **박경리와 『토지』**. 서울: 강.
- 김진석(1995). 소내(疎內)하는 한의 문학: 『토지』(pp.235-289). 황현산 외(1995). **토지비평집2: 한, 생명, 대자대비**. 서울: 숲.
- 박경리(1994). **土地** (1-16권). 서울: 숲.
- 박세다(2013). 영화 로맨스 **빠빠**의 아버지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변화영(2004). 소설과 민족지의 경계 넘기: 『탁류』의 경우. **한국문화인류학**, 37(1), 73-103.
- 서명원(2007). 한국 전통사회 아버지 상(像)에 대한 고찰: 왕족, 문헌 속 인물, 소설 속 인물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5(2), 101-121.
- 이계학, 유혜령, 손직수, 이흥우(1993).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연구논총 93-18).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상진(1999). **『토지』 연구**. 서울: 月印.
- 이상진(2012). **토지 인물사전**. 파주: 마로니에북스.
- 이진(2012). **『토지』의 가족서사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이흥우(1993). 전통 가정교육의 방법적 원리(pp.131-193). 이계학 외(1993).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연구논총 93-18).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임우기, 정호웅(1997). **토지 사전**. 서울: 숲.
- 전연우, 조희숙(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상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343-363.
- 조동일(1993). **韓國小說의 理論**. 서울: 지식산업사.
- 조선화, 최명선(2004).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상 척도 개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5(6), 53-68.
- 조형숙, 김지혜, 김태인(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아버지상에 대한 연구. **유**

아교육논집, 12(1), 239-264.

채희운(2012). **한국 소설의 아버지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천이두(1995). 한(恨)의 여러 궤적들(pp.183-198). 황현산 외(1995). **토지비평집2: 한, 생명, 대자 대비**. 서울: 솔.

최유찬(2008). **『토지』를 읽는 방법**. 서울: 서정시학.

최유찬 외(2008). **한국 근대문화와 박경리의 『토지』**. 서울: 소명출판.

황현산 외(1995). **토지비평집2: 한, 생명, 대자대비**. 서울: 솔.

현정환, 오경희(2008). 최근 한국 아버지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8(3), 105-121.

Deleuze, G. (1983). *Cinéma 1: l'image-mouvement*. H. Tomlinson & B. Habberjam (1986 trans.). *Cinema 1: the movement-imag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Geertz, C. (1957). Ritual and social change: a Javanese example. *American anthropologist*, 59.

Hanson, F. A. (1975). *Meaning in cultu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eacock, J. L. (1986). *The anthropological lens: harsh light, soft foc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논문접수 2015년 8월 10일 / 1차 심사 2015년 9월 7일 / 게재승인 2015년 9월 14일

* 김영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kyc@chungbuk.ac.kr

Abstract

The Images of Fathers and the Educational Power in the Novel *Tji(Land)* written by Park Kyung-ni

Kim, Young-chul*

This thesis tries to analyse the images of fathers and extract the educational suggestions from the novel *Tji* written by Park Kyung-ni. Fathers have inherited the 'basic factors' from their fathers(proto-fathers), and done the 'objective events'. In this thesis, the images of fathers are extracted from the 'individual problem' which are formed by the basic factors and objective events. Whether fathers have overcome their painful problems or not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educational communications with their offsprings. In sum, the images of fathers have two aspects, one, the content aspect which is whether fathers overcome their individual problems or not, the other, the expression aspect which is how much fathers have the educational power on their offsprings.

The eight fathers in the novel, Jo Byung-soo, Lee Yong, Kim Han-bok, Lee Hong, Lim Myung-bin, Kim Han-kyung, Kim Gil-sang, and Jo Chan-ha are chosen based on several assumptions of the thesis and show unique image of father respectively. I will try to categorize the eight images according to the overcoming of their problem(content aspect) and their educational power on offsprings(expression aspect). Finally the success or failure of father's self education which is realizable by his expanded self such as the religious love or the ideological cause, decides the educational power on his offsprings.

Key words: novel *Tji(Land)*, image of father, content aspect, expression aspect, self education, educational power

